

올바르게 기도하기

핵심 구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9

선택한 성구:

마태복음 6:5-15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한 제자가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눅 11:1-4). 이 제자가 이 질문을 할 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 점에서 상당히 다를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1-13, 마태복음 6:5-15).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기도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간결하며 직접적이고 질서 있고 경건한 기도의 스타일과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기도에서 똑같은 형식적인 단어를 반복하거나 긴 기도를 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하나님 아버지께 더 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7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9절).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종"의 나라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5:11, "무릎 꿇고 기도하라" 1:6).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에 대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그리스어: 특권)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2).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경건한 숭배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소중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옵소서." (마태복음 6:10). 우리는 모든 인류를 축복하고 현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악에 대한 영원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모두에게 축복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시련과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많은 약속을 모두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를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11절). 우리는 영적인 문제와 현세적인 문제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일상 생활에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2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동정심과 자비가 필요함을 기도로 표현하고, 구주의

공로를 통해 용서를 구하며,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44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13).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13, 로마서 8:28).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식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6